

people are seriously suffering and groaning from it. In this situation, church needs to develop a perspective to groan together with those who are suffering along with the Holy Spirit. Such an attitude not only results in life and action in compliance with the purpose of creation but enables to anticipate the arrival of the new creation promised by God in eschatological times. From this perspective, it is absolutely required to have restoration of the doctrine of creation. Due to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it is inevitable that modern man has a strong tendency to deny creation and the existence of God. For this reason, it is now more than required to restore the doctrine of creation and providence.

Key words: COVID-19, creation, providence, ecological/environmental crisis, weather change, new creation, eschatology

교회사

1-3세기 초대 기독교 성장: 진리와 사랑의 공동체

배정훈(고신대학교 신학과 교수)

[초록]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코로나 시대 이후 더욱 그렇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연구에서 거의 간과된 초대교회 역사를 다루고 이로부터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별히 1-3세기 교회의 성장 이야기를 추적할 것이다. 이 시기의 교회의 생성과 발전은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이루어졌다. 내부로는 이단의 공격을, 외부로는 유대인과 로마로부터 혹독한 박해를 받았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교회는 소멸되지 않고 오히려 급속도로 성장하여 급기야 로마의 국교가 되었다. 그 비결은 단순하다. 복음과 교회의 본질인 진리와 사랑 속에 머무르는 것이다. 안으로는 성경과 교리를 통해 말씀과 진리에 굳게 서고 외부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철저히 보여주었다. 예배와 교육과 훈련

을 통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하비투스'(habitus, 습관)을 형성했다. 나그네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다.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사랑의 실천이다. 교회는 가치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였다. 진리의 뿌리 위에 사랑의 결실을 맺는 신앙의 본질을 보여주었다. 거기서 영적 생명력이 나왔다.

주제어: 1-3세기 교회 성장, 이단, 박해, 진리, 사랑, 나그네로서의 삶

1. 들어가면서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코로나 시대 이후 더욱 그렇다. 기독교윤리실천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교회에 대한 한국사회의 신뢰도가 2020년 32%에서 올해 21%로 떨어졌다. 이미 70% 이상이 교회를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도 충격인데 그 비율이 10% 더 늘어났다. 이 수치대로라면 성도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올해 1월 말에 실천신학대학원 정재영 교수가 코로나 시대의 기독교 청년들의 인식에 대해 발표를 했다. 약 40%의 청년들이 성경대로 살면 성공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현재 20%의 청년들이 신앙은 있지만 교회는 다니지 않는 가나안 교인인데 그 비율이 10년 안에 2배로 증가한다고 한다. 사회 전반적으로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강하고 청년들이 신앙을 버리는 탈 기독교화 현상이 가속되고 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탈 복음화 현상이 상당히 커지고 있으며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지난 몇 년간 이미 이에 대한 많은 연구와 수많은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

다.¹ 본 논문에서는 최근 연구에서 거의 간과된 초대교회 역사를 다루고 이로부터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한다. 성공회 신학자 윌리엄스(Rowan Williams)가 지적한 것처럼 교회는 지난 역사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이후의 문제를 예견하고 교훈점을 제공한다.² 초대교회는 시대적으로 1-6세기의 교회의 역사를 말한다.³ 처음으로 기독교가 발생해서 이후의 시대의 토대를 만든 시대이다. 익숙한 것 같으면서도 신기하고 낯선 것도 많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초대교회 성장이다. 갈릴리의 시골에서 시작된 조그만 민족종교가 술한 고난 속에서도 성장하여 313년에는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 공인되었고 381년에 로마제국의 국교가 되는 승리를 이루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⁴

1. 안명준 편, 『교회통찰: 코로나, 언택트, 뉴 노멀 시대 교회로 살아가기』 (서울: 세움북스, 2020); 이도영, 『코로나19 이후 시대와 한국교회의 과제』 (서울: 새물결플러스, 2020); 이현철 외 3명, 『코로나시대 청소년 신앙 리포트』 (서울: SFC, 2021)
2. Rowan Williams, *Why Study the Past?: The Quest for the Historical Church*, 양세규 역, 『과거의 의미: 역사적 교회에 관한 신학적 탐구』 (서울: 비아, 2019).
3. 최근에는 1,000년까지를 초대교회로 간주하기도 한다. Peter Brown, *The Rise of Western Christendom: Triumph and Diversity A.D. 200-1000*, 이종경 역, 『기독교 세계의 등장』 (서울: 새물결, 2004); Robert L. Wilken, *The First Thousand Years: A Global History of Christianit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2); John A. McGuckin, *The Path of Christianity: The First Thousand Years* (Downers Grove: IVP).
4. 이 흥미로운 주제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Edward Gibbon, *The History of the Decline and Fall of the Roman Empire* (New York: Random House, 2003); Adolf von Harnack, *The Mission and Expansion of Christianity in the First Three Centuries*, trans. James Moffatt (London: Williams, 1908); Ramsey MacMullen, *Christianizing the Roman Empire A.D. 100-400*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4); Robin Lane Fox, *Pagans and Christians* (New York: Knopf, 1987); Rodney Stark, *The Rise of Christianity: How the Obscure, Marginal Jesus Movement Became the Dominant Religious Force in the Western World in a Few Centuries*, 손현선 역, 『기독교의 발흥: 사회과학자의 시선으로 탐색한 초기 기독교 성장의 요인』 (서울: 좋은씨앗, 2016); Alan Kreider, *The Patient Ferment of the Early Church: The Improbable Rise of Christianity in the Roman Empire*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6); Larry W. Hurtado, *Destroyer of the Gods: Early Christian Distinctiveness in the Roman World*, 이주만 역, 『처음으

본 논문은 특별히 1-3세기 교회의 성장 이야기를 추적할 것이다. 지금까지 학계의 연구결과들을 비평적으로 요약하면서 초대교회의 성장을 조금은 새로운 각도에서 살펴볼 것이다. 먼저 초대교회의 두 가지 위기를 내외적인 측면에서 분석할 것이다. 이는 기독교의 성장이 얼마나 힘든 환경 속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보여줄 것이다. 다음으로 초대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어떻게 이러한 위기를 해쳐나갔는지를 설명할 것이다.

2. 초대교회의 위기: 이단과 박해

초대교회는 시작부터 순탄하지 않았다. 사실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을 겪었다. 신앙생활을 하면 모든 일이 형통했으면 좋겠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신앙에는 항상 고난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초대성도들은 내부적으로 먼저 이단의 공격을 받았다. 이단(heresy)은 헬라어 αἵρεσις에서 파생한 단어로 헬레니즘 시대에는 중성적인 의미에서 '선택' 혹은 '철학학과'를 의미했다. 이후 유대교를 거쳐 기독교에서는 정통교리와 실천에서 벗어난 무리들을 지칭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⁵ 기독교는 생성초기부터 이단들이 등장하였는데 이것은 교회가 자기 정체성, 즉 정통성을 정립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단이 정통 기독교의 형성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한 것이다.⁶

로 기독교인이라 불렀던 사람들』(서울: 이와우, 2017); 김덕수, 『로마와 그리스도교: 그리스도교는 어떻게 로마를 정복했는가?』(서울: 홍성사, 2017).

5. V. Grossi, "Heresy-Heretic," in *Encyclopedia of Ancient Christianity*, ed. Angelo Di Berardino, vol. 2 (Downers Grove: IVP, 2014), 216-17.

6. Justo L. Gonzalez, *The Story of Christianity 1: The Early Church to the Dawn of the Reformation*,

이 시기의 대표적인 이단은 3가지이다.⁷ 첫째는 영지주의로 주후 약 50-250년 사이에 활동했다. 바울 서신과 요한 1서, 그리고 익나티우스 서신들은 영지주의적 이단들이 교회 안에 침투했음을 알려준다. 1945년 이집트의 나그 함마디(Nag Hammadi)에서 『도마 복음』과 『진리의 복음』과 같은 영지주의 문서들(51개)이 발견됨으로 이 사상체계에 대한 접근을 좀 더 용이하게 만들었다. 일반적으로 영지주의는 인도, 바벨론, 페르시아 등 동양의 이원론 사상과 그리스 철학, 유대교의 필로와 기독교 사상이 결합된 혼합주의적 체계이다. 대표적인 영지주의 교사들은 안디옥의 바실리데스(Basilides), 로마의 발렌티누스(Valentinus) 등이 있다.⁸

2nd ed., 엄성욱 역, 『초대교회사』(서울: 은성출판사, 2012), 103-104.

7. 바우어(Walter Bauer)와 그의 논제를 따르는 학자들은 기존의 정통-이단 간의 구분을 비판하면서 초대교회는 다양한 기독교 집단으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했다. 마르시온주의, 영지주의, 몬타니즘과 같은 집단들은 이단이 아니라 기독교였다는 것이다. 학자들은 초기의 주도권 싸움에서 원시 정통교회(proto-orthodoxy)가 승리하였고 그 후에 기독교는 획일화되었다고 지적한다. 교회가 초기의 다양성과 역동성이 상실한 채 교조주의화 되었다고 주장한다. 바우어의 논제를 페이지스(Elaine Pagels)와 어만(Bart D. Ehrman)이 대중화시켰다: Walter Bauer, *Orthodoxy and Heresy in Earliest Christianity*, trans. Robert A. Kraft and Gerhard Krodel, suppl. Georg Strecker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9); Elaine Pagels, *The Gnostic Gospels*, 하연희 역, 『영지주의: 숨겨진 복음서』(서울: 루비박스, 2006); ead., *Beyond Belief: The Secret Gospel of Thomas*, 권영주 역, 『믿음을 넘어서: 도마의 비밀 복음서』(서울: 루비박스, 2006); Bart D. Ehrman, *Lost Christianities: The Battle for Scripture and the Faiths We Never Know*, 박철현 역 『잃어버린 기독교의 비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성경과 교리를 둘러싼 숨 막히는 전투』(서울: 이제, 2008). 최근에 퀴스텐버그(Andreas J. Köstenberger)와 크루겔(Michael J. Kruger)은 바우어 논제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들의 해석은 현대 상대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초기교회의 형태를 오해했다고 주장한다. 교회는 초기부터 이단과 정통의 구분이 분명하였다는 것이다. Andreas J. Köstenberger and Michael J. Kruger, *The Heresy of Orthodoxy: How Contemporary Culture's Fascination with Diversity Has Reshaped Our Understanding of Early Christianity* (Wheaton: Crossway, 2010). 초대교회 이단의 역사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고하라: Alister E. McGrath, *Heresy: A History of Defending the Truth*, 홍병룡 역, 『그들은 어떻게 이단이 되었는가: 교회가 신앙을 지켜온 치열한 역사』(서울: 포이에마, 2011).

8. Joseph H. Lynch, *Early Christianity: A Brief Hist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54, 58-59; 이상규,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로마 제국 하에서의 기독교』(서울: SFC, 2016), 160, 162.

영지주의라는 용어는 “지식”을 의미하는 헬라어(gnosis)에서 파생되었다. 영지주의자들은 그들이 세계와 인간에 대한 특별하고 비밀스러운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를 통해 얻으며 이것이 구원이라고 주장했다.⁹ 2세기 영지주의 교사 데오도투스(Theodotus)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일 우리가 지식(gnosis)를 가진다면 우리는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어디로부터 해방되어야 하는지, 출생은 무엇이며 재탄생은 무엇인지 알 수 있다.”¹⁰ 영지주의자들은 기독교에 심각한 위협을 주었다. 그들은 모든 물질을 악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했다. 그리스도는 진짜 몸처럼 보였거나 혹은 우리와 다른 몸이었다고 가르쳤다. 이것은 가현설(Docetism)로 ‘처럼 보인다’는 헬라어 *dokein*에서 유래되었다. 물질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성육신, 부활 등의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들은 부정되었다. 또한 이로 인해 실제 삶에서 극단적인 금욕주의자가 되거나 아니면 극단적인 쾌락주의, 방종주의자가 되었다.¹¹

영지주의와 더불어 초대교회에 큰 어려움을 준 이단은 마르시온(Marcion of Sinope, c.85-164)이다. 그는 85년경 터키의 흑해 해안에 위치한 본도의 해변도시 시노페(Sinope)에서 태어났다. 히폴리투스(Hippolytus of Rome, c.170-235)는 그가 시노페의 감독의 아들이었다고 말한다.¹² 마르시온은 140년경에 로마로 건너가서 처음에는 정통 기독교회에 속해 있었지만 영지주의 사상을 접하게 되면서 구약성경의 하나님을 부정하는 시몬 마구스와 케르도

9. Lynch, *Early Christianity*, 54-55; 이상규,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162.
10. Theodotus, Clement of Alexandria, *Excerpta ex Theodoto*, 78.2, Lynch, *Early Christianity*, 56에서 재인용.
11. 이상규,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163-64.
12. 이상규,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164.

의 제자가 되었다.¹³ 마르시온은 『대립명제』에서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별개의 존재라고 주장한다. 구약의 여호와는 악한 신으로 이 세상과 사람을 만들었다. 여호와는 특별한 민족만 선택한 독선적인 신이며, 자기에게 불순종하는 자를 심판하는 신이다. 또한 율법주의적이다. 이와 다르게 신약의 신, 즉 기독교인들의 하나님인 성부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많으시고 구원을 값없이 주신다. 이 사랑의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보냈다. 하지만 예수는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티베리우스 황제 때 성인으로 등장했다.¹⁴

신론에 대한 마르시온의 개념은 그의 정경론에도 영향을 주었다. 구약의 하나님을 열등한 존재로 본 그는 히브리 경전들의 정경성을 부인했다. 신약 성경에서도 바울의 10개 서신들과 누가복음만을 인정했다. 다른 복음서들은 유대적인 관점에 의해 오염되고 왜곡되었지만 누가는 바울의 동료였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들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도 유대적인 유산들, 즉 예수의 유대 족보와 예수의 부모들이 모세의 법을 지키는 장면이 등장하는 예수의 유아기사 등은 삭제되었다. 심지어 바울서신 안에서도 유대적인 요소가 발견되면 제거되었다.¹⁵ 이러한 그의 이단적인 주장으로 인해 마르시온은 144년 로마교회로부터 출교되었다.¹⁶ 마르시온주의는 교회에 큰 위협을 주었는데 그 이유는 영지주의자들처럼 창조, 성육신, 부활 등을 부정하면서도 그들과는 달리 감독들과 성경을 갖춘 교회를 조직했기 때문이다.¹⁷

마지막 이단은 몬타누스주의이다. 몬타니즘(Montanism)은 예언활동과

13. 이상규,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165; Lynch, *Early Christianity*, 60.
14. Gonzalez, 『초대교회사』, 110-11; Lynch, *Early Christianity*, 60.
15. Gonzalez, 『초대교회사』, 111; Lynch, *Early Christianity*, 61.
16. Lynch, *Early Christianity*, 60.
17. Gonzalez, 『초대교회사』, 112.

관련이 있다. 이 이단의 창시자 몬타누스(Montanus)에 대한 정보는 많이 남아있지 않다. 그의 출생지는 분명치 않으나 소아시아의 프리기아(phrygia) 지방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 키벨레 신전의 사제였다. 약 170년부터 그는 예언을 하기 시작했고 막시밀라(Maximilla)와 프리실라(Priscilla) 두 여 예언자들이 가담했다.¹⁸ 몬타누스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새로운 계시를 주장한 것이다. 그는 황홀경 속에서 자신이 성령의 대변자, 심지어 요한복음 14장 25-26절이 말한 보혜사 자체라고 주장했다. 이 계시는 구약과 복음서의 말씀을 완전하게 만들며 예수 역시 자신의 계시를 전하기 위한 수금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¹⁹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따르면 몬타누스는 “영에 사로잡혀 황홀경에서 이상한 소리로 중얼거리며 지금까지 교회에서 통상적으로 해온 것과는 다른 모양으로 예언했으며 두 여자를 세워 그들에게도 거짓 영을 부어 줌으로써 자기와 같이 영광적으로 지껄이게 했다.”²⁰ 또한 몬타누스는 임박한 종말을 강조했다. 그는 종말이 곧 도래할 것이라고 선언하며 프리기아의 작은 도시 페푸자(Pepouza)에 새 예루살렘이 세워질 것이라고 예언했다. 페푸자가 마지막 시대의 피난처가 될 것이라는 소문이 퍼져 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사람들은 종말을 대비하기 위해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실천했다. 직업과 가족을 버리고 엄격한 금식과 금욕을 강조했고 결혼을 부정했다. 순교를 갈망하고 순교자들을 크게 존경하였다. 이와 더불어 몬타누스는 기존교회의 제도화와 교권화를 반대하며 감독과 교사는 교회나 사람에게 의해 임명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직접 맡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²¹

18. Lynch, *Early Christianity*, 76; 이상규,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305.

19. Lynch, *Early Christianity*, 76.

20. Eusebius, *Church History*, 5.16.7, 9, 이상규,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308에서 재인용.

21. Lynch, *Early Christianity*, 77; 이상규,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307-308.

소아시아의 작은 도시에서 발생한 몬타누스주의는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어 2세기 말에는 로마와 북아프리카까지 퍼졌다. 주교들은 공의회를 열어 세계시 운동을 거부하고 그 추종자들을 정죄하였다. 몬타누스와 여 선지자들이 죽은 후 페푸자에 묻혔고 그 무덤은 6세기 유스티니안(Justinian) 황제에 의해 파괴되기까지 이 그룹의 중심지가 되었다.²² 202년 경 북아프리카 교부 터툴리안(Tertullian, c.160-220)이 안타깝게도 이 운동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도화된 교회와 나태한 신앙을 비판했던 몬타누스주의에 그가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생애 말기에 터툴리안은 몬타누스파에 실망하여 별도의 그룹을 만들게 되었다.²³

이단의 위협만 해도 힘든데 초대교회 신자들은 동시에 모진 박해도 견뎌야 했다.²⁴ 기독교는 형성초기부터 박해를 피할 수 없었는데 그들을 박해한 주요 세력들은 유대교와 로마제국이다. 유대교인들의 핍박도 극렬했지만 로마 정부의 지도자들로 인한 고통은 훨씬 더 컸다. 기독교의 형성초기부터 시작된 박해는 중단된 때가 있었지만 313년(동방은 323년까지)까지 지속되었다. 수백 년 동안 기독교인들은 모진 박해와 핍박을 견뎌야 했다. 박해 시기는 250년 데시우스(Decius, 250-51)황제를 기점으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250년 이전까지의 기독교 박해는 간헐적이고 부분적이었다면 이후에는 좀 더 지속적이고 제국 전체에 걸쳐서 조직적으로 발생했다.²⁵ 제한된 지면에 모든 사건을 상세하게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로마박해의 대표적인 사건들과 인물들을 중심으로 초대 기독교의 박해 이야기를 서술할 것이다.

22. Lynch, *Early Christianity*, 77-78.

23. 이상규,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309.

24. 이 부분은 배정훈, “1-3세기 박해: 역사적 사실과 교훈,” 『고신신학』 22 (2020): 195-202를 많이 참조했다.

25. 이상규,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350, 363.

로마의 박해의 유대인들보다 훨씬 기독교의 존립에 위협을 가했다. 허타도(Larry W. Hurtado)는 기독교에 대한 이교도들의 평가를 분석하여 1-3세기의 교회가 특이하고 기이했으며 어떤 면에서는 위협하고 혐오스럽게 보였음을 보여주었다.²⁶ 기독교에 대한 이교도인들의 적대감의 원인은 다양하다. 우선적으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며 나머지 종교는 모두 거짓이라고 부정했기 때문이다. 로마는 기본적으로 다신교 국가여서 제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모든 종교를 인정했다. 하지만 유대교의 한 분파로 간주된 교회가 거기로부터 분리되었지만 여전히 유일신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졌다. 특히 로마의 전통종교와 함께 황제숭배를 거부했는데 이는 반역에 해당되는 행위였다.²⁷ 황제를 예배하라는 명령을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통치자들을 분노하게 했다. 2세기 초반의 비티니아 총독 플리니(Pliny the Younger)는 그들을 권력에 굽힐 줄 모르는 완고한 집단으로 취급하였다.²⁸ 황제숭배와 로마의 전통 신들을 부정한 기독교인들은 '무신론자'로 취급되었다. 그 당시 종교는 모든 공적, 사적인 삶의 영역과 관련이 있었기에 자연적 재해나 전쟁 등은 기독교인들이 조상의 신들을 버린 결과를 받는 별로 생각되었다.²⁹ 또한 기독교인들은 황제숭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이유로 군인이나 공직을 거부했다. 연극관람이나 검투사의 혈투에도 참여할 수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반사회적인 집

26. Hurtado,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렀던 사람들』, 6-64. 이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Robert L. Wilken, *The Christians as the Romans Saw Them*, 2nd ed.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3).

27. Lynch, *Early Christianity*, 82; Gonzalez, 『초대교회사』, 62; 이상규,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363-64.

28. Pliny, Epistle, 10.96.3, J. Stevenson(ed.), *A New Eusebius: Documents Illustrating the History of the Church to AD 337*, rev. by W. H. C. Frend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3), 21.

29. Lynch, *Early Christianity*, 81; 이상규,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362.

단으로 취급되었다.³⁰

이교도 지식인들은 기독교를 폄하하고 공격했다. 역사가 플리니우스(Pliny the Younger, 61-113, 111년), 타키투스(Cornelius Tacitus, c. 55-117, 115년), 수에토니우스(Suetonius, 69-c.130, 122년) 등은 기독교를 대중들의 정신을 혼란하게 만드는 새로운 타락한 미신(*superstitio nove et prava*)으로 왜곡시켰다. 소피스트인 사모사타의 루시안(Lucians of Samosada)은 180년경에 저술한 『페레그리누스의 죽음』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희생을 꺼리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했다. 신플라톤주의 철학자 포르피리우스(Porphyrus)는 15권의 책을 저술하면서 기독교를 공격했는데 거기서 그는 구약과 신약은 서로 모순되고 예수는 거짓말쟁이이며 사도들 사이에는 분쟁이 심했다고 기록했다.³¹ 이교 철학자 켈수스(Celsus)는 178년에 작성된 『참된 말씀』에서 기독교는 그리스 철학에 비해 훨씬 열등한 종교라고 비웃었다.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의 최고의 스승도 그리스 철학자들의 수준에 올라온 적이 없는 원시적인 수준을 가졌다는 것이다. 또한 기독교는 내적인 모순이 가득한 형편없는 종교적 체계였다.³²

그리고 기독교를 둘러싼 대중들의 악의적인 소문이 있었다. 남녀들의 모임, 거룩한 입맞춤 등은 기독교 공동체가 근친상간 혹은 집단 성교를 일삼는 것으로, 성찬식은 식인의식으로 오해되었다.³³ 2세기의 유명한 수사학자이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스승이었던 프론토(Fronto, c.100-c.166)는 기독교를 매우 저급한 집단으로 묘사하는데 이는 기독교에 대한 당시 엘리트들

30. 이상규,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362.

31. 이상규,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240-41.

32. Origen, *Against Celsus* 3.55, 4.3, Gonzalez, 『초대교회사』, 90-92에서 재인용; 이상규,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240.

33. Lynch, *Early Christianity*, 81.

의 인식을 어느 정도 반영한다.³⁴

로마의 기독교 박해는 네로 시대(Nero, 54-68)부터 시작되었다. 주후 64년 6월 18일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했다. 키르쿠수 막시무스(Circus Maximus)에서 시작된 화재는 일주일 간 지속되었고 도시의 14구역 중에 10구역이 소실되었다. 화재의 원인을 둘러싸고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즉, 네로가 로마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불을 질렀다는 것이다. 또한 그가 시적인 영감을 얻기 위해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배우처럼 분장하고 궁정의 침탑 위에서 칠현금을 연주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네로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화재를 면한 두 구역에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많이 살았다는 점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화재의 혐의를 씌우고 탄압하기 시작했다.³⁵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115-117년경에 쓴 것으로 보이는 『연대기』에서 네로가 방화의 혐의를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들이 당시에 혐오를 받고 있던 집단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인류를 증오한다고 판단되었다.³⁶

타키투스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극형이 내려졌다. 이 당시의 처벌은 매우 잔인했고 또한 일종의 놀이거리로 제공되었다. 신자들은 털옷에 덮여 개들에 의해 찢겨 죽기도 했고 십자가 형에 처해지기도 했다. 어떤 사람들은 밤에 등불로 태워졌다. 네로는 사람들이 박해 장면을 보도록 자신의 정원을 개방하고 원형극장에서 쇼도 주관하였다. 심지어 그는 전차를 직접 몰기도 하고 전차병으로 위장하기도 했다. 온갖 조소들과 놀림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다. 네로 시대의 박해는 로마에 국한된 것 같다. 얼마나 많은 기독교

34. Fronto, quoted by Minucius Felix, *Octavius*, 9, Lynch, *Early Christianity*, 82에서 재인용.

35. Gonzalez, 『초대교회사』, 63-64; 이상규,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364.

36. Tacitus, *Annals*, 15.44.2-5, J. Stevenson, *A New Eusebius*, 2-3에서 인용.

인들이 핍박을 받았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처형당한 것 같다.³⁷ 베드로와 바울이 네로 시대에 순교를 당했다고 알려졌다. 주후 68년 네로의 죽음으로 박해는 중지되었고 기독교인들은 잠시 동안 평화를 누렸다.

4세기 초에 마지막이자 가장 심한 박해가 발생했고 이는 ‘대 박해’로 불린다. 이 박해는 디오클레티안(Diocletian, 284-305)에 의해 발생했다. 디오클레티안의 아내 프리스카와 딸 발레리아가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교회의 평화가 계속 될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그것과 반대였다. 디오클레티안은 전형적인 로마인으로 전통종교를 기점으로 제국을 통일하려고 하였다. 적의 침입으로 인한 동요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황제는 이를 거부하는 세력은 가차 없이 처단하였고 기독교인들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 298년 군대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쫓아내는 것으로 박해가 시작되었다. 몇몇의 기독교인들이 입대를 거부하고 병역을 이탈했다는 이유로 처형되었다. 디오클레티안 칙령은 기독교인들을 군대에서 축출할 것만을 명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처형당했다.³⁸

디오클레티안의 ‘카이사르’(황제계승자)였던 갈레리우스는 디오클레티안에게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설득했고 결국 303년 1차 칙령이 공포되어 기독교인들은 공직에서 해임되고 교회는 파괴되고 성경은 소각되었다. 처음에 이 칙령은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황궁에 두 차례 화재가 발생했고 갈레이우스는 이를 황제의 명령에 불만을 품은 기독교인들의 소행으로 돌렸다. 이에 디오클레티안은 303년 여름에 2, 3차 칙령을 발표하여 황실을 섬

37. Tacitus, *Annals*, 15.44.2-5, J. Stevenson, *A New Eusebius*, 2-3.

38. Gonzalez, 『초대교회사』, 179-80; Karl S. Frank, *Lehrbuch der Geschichte der Alten Kirche*, 하성수 역, 『고대교회사 개론』 (서울: 가톨릭출판사, 2008), 209.

기는 모든 기독교인과 사제들을 체포하여 신들에게 제사를 지낼 것을 엄명했다. 제국 전역에서는 교회들과 기독교 서적들이 불태워졌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처형당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황제는 기독교인들이 반역을 꾀한다고 여겨 304년 봄 4차 칙령을 통해 기독교인 전체가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공포했다. 이로 인해 교회는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당했다. 사람들은 고문 받고 각종 다양한 방법으로 처형당했다.³⁹

3. 대처방안: 성장의 요인

위와 같은 사실만 놓고 본다면 기독교는 사라지는 게 당연한 것이다. 크라이더(Alan Kreider)는 3세기까지의 교회의 성장의 비밀을 밝히는 책의 부제를 ‘기독교의 불가능한 성장’(the improbable rise of Christianity)라고 붙였다. 그는 당시 기독교가 처한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몇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기독교인을 고발하고 처형하는 법과 사회 관습이 존재했다. 이 때 세례교인이 된다는 것은 ‘죽음의 후보자’가 되는 것이었다. 둘째 그들의 예배는 매력적이지 않았고 그들의 모임 뿐만 아니라 존재 자체가 혐오의 대상이었다. 셋째, 흥미롭게도 어떤 선교나 전도를 위한 전략이나 계획이 없었다. 크라이더는 3세기까지 전도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주장한다.⁴⁰ 켈트족의 종교 드루이드(druids)는 로마의 박해를 받고 곧 없어졌다.⁴¹ 하지만 기독교는 달랐다. 없어지기커녕 신기하게도 성장했다. 터틀리안은 기독교인들의 수가 모

39. Gonzalez, 『초대교회사』, 181-84; Frank, 『고대교회사 개론』, 210-11.
40. Kreider, *The Patient Ferment of the Early Church*, 7-12.
41. Lynch, *Early Christianity*, 26-27.

든 도시의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과장적으로 말하기도 했다. 오리겐(Origen, c.185-c.254)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제국을 지나 브리타니아까지 전 세계로 전파되었다고 보고한다.⁴²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지만 스타크(Rodney Stark)에 따르면 첫 3세기 동안 기독교인의 수는 급증하여 매 10년마다 40%씩 증가했다고 한다. 콘스탄틴(Constantine, 306-337)에 의해 밀라노 칙령이 반포된 때에는 제국의 전체 인구의 8-12퍼센트, 즉 오백 만에서 6백만의 신자들이 있었다는 것이다.⁴³ 3세기까지의 교회는 투박하고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상하면서도 흥미로우며 매력적이었다.⁴⁴ 어떻게 교회가 큰 위기 속에서 매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

3.1. 진리의 터

1) 기도

교회의 대처방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는 기도이다. 초대교회는 박해를 당할 때 기도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지도자가 붙잡힌 위기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했다. 이는 예수로부터 배운 것이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는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 홀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초대교회에도 현대교회와 같이 공적인 기도가 있었다. 말씀예배와 성

42. Tertullian, *Scap.* 2; Origen, *Hom. Luc.* 6.9, Kreider, *The Patient Ferment of the Early Church*, 7에서 재인용.
43. Stark, 『기독교의 발흥』, 22-24.
44. Alan Kreider, *Resident But Alien: How the Early Church Grew*, 홍현민 역, 『초대교회에 길을 묻다』 (서울: 하늘씨앗, 2020), 16.

찬예배의 곳곳에 예식을 위한 기도가 있었고 통일성을 주기 위해 형식화되었다.⁴⁵ 이외에도 개인기도와 가정기도가 강력하게 권고되었다. 성도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바울의 가르침(살전 5:17)에 따라 어디에 있든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클레멘트(Clement of Alexandria, c.150-c.215)는 기도를 하나님과 신자들 사이의 대화로 정의하였다.⁴⁶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속적인 기도를 실천하기 위해 하루의 특정한 시간을 하나님을 찾는 시간으로 정했다. 교회지침서로 초대교회의 가장 초기의 문서들 중에 하나인 『디다케』는 유대인들의 관습을 대체하여 주기도문으로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라고 가르친다.⁴⁷ 터툴리안, 키프ريان(Cyprian of Carthage, c.200-258), 오리겐은 주기도문을 강해하면서 3시, 6시, 9시 이렇게 세 차례뿐만 아니라 목욕하기 전과 한밤중에도 기도할 것을 권했다.⁴⁸ 『사도전승』에 따르면 이러한 시간들은 모두 예수님의 수난과 십자가 죽음과 관련 있다. 가령 3시의 기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을 기억하는 것이다.⁴⁹ 초대 기독교인들은 특히 한밤중 적어도 밤중 기도를 강조했다. 집안 식구들이 모두 모일 수 있는 조용한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저녁 식사 후 등불을 가져오거나 점등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러한 이유로 키프리안은 밤중의 기도의 빛이 어둠을 밝힌다고 말했다. 신자들은 개인기도와 더불어 교회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⁵⁰ 『사도전승』에 따르면 그들은 교회에서 기도하며 매일 하나님의 지키

45. 우병훈, “초대교회 신자들의 삶과 그 교훈,” 이신열 편, 『교리학당』 (부산: 고신대학교 출판부, 2016), 200.

46. Frank, 『고대교회사 개론』, 288.

47. Didache, 8.2-3, 정양모 역주, 『디다케: 열두 사도들의 가르침』(예관: 분도출판사, 1993).

48. Frank, 『고대교회사 개론』, 288.

49. Hippolytus, *Apostolic Tradition*, 41, 이형우 역주, 『사도전승』(예관: 분도출판사, 1992).

50. Ernst Dassmann, *Kirchengeschichte I: Ausbreitung, Leben und Lehre der Kirche in den ersten drei Jahrhunderten*, 하성수 역, 『교회사 1: 초기 3세기 교회의 확장, 생활, 가르침』(예관: 분도출판

사와 인도하심을 체험하였다.⁵¹

주기도문은 초대교회에서 오랫동안 기도의 표본으로 애용되었다. 터툴리안, 오리겐, 키프리안과 같이 여러 교부들이 주기도문 강해를 남겼다. 주기도문이야말로 주님 자신의 말로 하나님께 간청할 수 있는 호감 있고 친밀한 기도였다. 이러한 전통은 종교개혁 때까지 계속되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는 “나는 매일 밤마다 주기도문을 묵상하면서 기도한다. 여기에 십계명이 더해진다면 그날은 정말 풍성한 밤이 될 것이다”고 했다.⁵² 교회는 또한 기독교적으로 해석된 시편집도 선호하였다. 이러한 기도집은 영지주의 무리에서 만들어진 것도 있는데 교회는 이를 변경하여 사용했다.⁵³

헤르마스의 『목자』는 동쪽을 향해 기도하는 관습을 보여준다. 사람들은 주님께서 동쪽으로 재림하시고 또한 거기에 낙원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기대 속에서 동쪽을 바라보며 기도했다. 후대에는 동쪽 방에 십자가를 걸어두거나 그려 놓고 그 앞에서 기도를 드렸다. 기도 전에 이마에, 후대에는 눈과 입에도 십자 표시를 했다. 하늘을 우러러 보거나 손을 올려 기도하기도 했다. 무릎을 꿇거나 찬양, 용서를 위한 간청이나 탄원하는 기도에는 그에 상응하는 동작을 했다. 클레멘트는 신자들이 말하지 않으면서 마음속에서 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그와 교제하는 마음의 기도를 최고로 여겼다.⁵⁴

초대교회 신자들은 또한 정기적으로 금식함으로 주님을 간절히 찾았다. 유대교는 정기적으로 월, 목요일을 금식일로 정했는데 차별화를 위해 교회는 이

사, 2007), 345.

51. Hippolytus, *Apostolic Tradition*, 41.

52. 우병훈, “초대교회 신자들의 삶과 그 교훈,” 199.

53. Frank, 『고대교회사 개론』, 288.

54. Dassmann, 『교회사 1』, 347-48.

날짜들을 수, 금요일로 변경했다.⁵⁵ 금요일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었고 수요일은 아마도 가룟유다의 배반을 경계하기 위한 것이었을 것이다. 예수님을 배신하지 말자고 다짐한 것 같다.⁵⁶ 이와 같이 초대 기독교인들은 기도와 금식하며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인내하였다. 이러한 기도의 인내가 발효되어 그들의 삶이 되었다.⁵⁷

2) 정경과 신조의 형성

교회는 권위 있는 성경의 목록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는 '정경화'(canonization)라고 불린다. 이단들은 그들만의 정경목록을 만들어 기독교회를 공격했기 때문에 예수와 그의 제자들의 글들 중에 어떤 것들을 권위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단들의 공격에 대하여 원시 정통교회는 정경목록을 만들기 시작했다. 정경(canon)은 헬라어로 '척도,' '기준'을 의미한다. 정경은 정통과 이단과의 경계를 정하는 기준이라는 뜻이다.⁵⁸ 초기 기독교에는 우리가 아는 성경 외에 여러 글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될 책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되었다. 교회가 이를 결정했으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

우선 기독교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와 연결되므로 구약성경이 기독교 정경에 포함되었다.⁵⁹ 신약성경의 정경화는 긴 시간을 통해 이루어졌다. 초대교회의 작품들이 성경으로 인정받는 데에는 몇 가지 원리들이 있었다. 첫째는 사도들의 저작 여부였다. 둘째는 정통기독교의 가르침과 일치하느냐가

55. *Didache*, 8.1.

56. 우병훈, "초대교회 신자들의 삶과 그 교훈," 199.

57. Kreider, *The Patient Ferment of the Early Church*.

58. Lynch, *Early Christianity*, 71-72.

59. Gonzalez, 『초대교회사』, 115.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했다. 셋째는 교부들과 교회들의 승인이었다. 정경화 작업은 수세기에 걸쳐 이루어지다가 4세기 후반이 되면 신약의 정경은 27권으로 결정되었다: 사복음서, 사도행전, 21개의 서신들, 요한의 묵시록. 367년 이집트의 주교들에게 보낸 아타나시우스(Athanasius, 295-373)의 편지에서 처음으로 27권의 완벽한 목록이 등장한다. 이 편지에는 또한 27권의 구약성경 목록이 나타난다. 히포 주교회의(393년)와 두 번의 카르타고 회의(397, 419년)에서 히포의 주교 어거스틴(Augustine of Hippo, 354-430)은 27권의 신약정경을 다시 확증했다.⁶⁰

정경이 형성됨으로 정통과 이단의 구별이 가능해졌지만 누구나 알기 쉽게 정통신앙의 핵심을 좀 더 간략하게 만드는 작업이 필요했다. 이 과정에서 나온 것이 신조, 즉 교리이다. 신조(creed)는 라틴어 *credo*(내가 믿습니다)에서 유래되었다. 지역마다 신조는 조금씩 다른데 대표적인 것이 180년경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도신경으로 '옛 로마 신경(Old Roman Creed)로 불리기도 한다. 고대 교회에서 사도신경은 "신앙의 상징(symbol of the faith)"으로 불렸다. 고대에서 상징(*symbolum*)은 장군이 자신의 사신에게 주는 표식으로 받는 사람은 이것으로 진정한 그의 사신이라는 점을 증명했다. 신조는 세례 때 지원자의 신앙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었기 때문에 세례신조(baptismal creed)로도 불렸다. 신조는 삼위일체론적 구조이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시작으로 아들, 다음으로 성령과 종말에 관한 신앙을 선언하였다. 신자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에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여부가 확인되었다.⁶¹ 고대 세계에서 기독교는 '책의 종교'로 불릴 만큼 기독교 문헌을 봉독하고, 쓰고, 필사하고 전파하는 활동을 두드러지게 했

60. Lynch, *Early Christianity*, 72-75.

61. Lynch, *Early Christianity*, 71; Gonzalez, 『초대교회사』, 117.

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이 있었다.⁶² 이와 같이 교회는 성경과 교리교육을 통해 진리 가운데 굳게 서서 이단의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와 그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알고 말씀이 주는 힘과 능력으로 산 것이다.

3) 교회의 조직과 직분

외부의 위협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구심점이 필요했다. 직분의 정확한 형성 시기는 파악하기 힘들지만 2세기 중반이 되면 지역 교회는 일반적으로 감독, 장로, 집사, 이렇게 3중 구조로 자리 잡게 된다. 감독(*episcopoi*, 감독자)이 지 교회의 지도자이며 장로들(*presbuteroi*)과 집사들(*didaconoi*, 봉사자)이 감독의 사역을 돕는다(행 11:30; 빌 1:1; 벧전 2:25; 딤후 3:1-2; 4:14; 딤후 1:7; 약 5:14; 디다케 15). 감독은 오늘날의 목사로 말씀을 가르치고 성례를 집행한다. 장로는 목사를 도와 교회를 감독하고 집사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한다. 교회는 감독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교회를 굳건하게 지켰다. 사도로부터 받은 신앙을 다음세대에 전수하였다. 직분자들이 제 역할을 바르게 수행하지 못하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⁶³

점차적으로 지역교회의 감독의 권한이 더 강하게 되는데 이단들의 활동으로 인한 위협이 큰 작용요인이 되었다. 영지주의와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에 대항하여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Ignatius of Antioch, c.30-110)는 감독과 그와 장로들과 집사들로 구성된 지도권을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할 것

62. Hurtado,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렀던 사람들』, 133-82.

63. Lynch, *Early Christianity*, 62-63, 65. 첫 3세기의 교회조직의 발전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도 참고하라: 조병하, “초대교회 교회조직 발전에 대한 연구: 사도적 교부, 사도전승, 디다스칼리아를 중심으로(첫 3세기),” 『한국개혁신학』31 (2010): 190-217.

을 강조한다.⁶⁴ 그는 교회의 모든 활동, 특히 성례전은 감독이 없이는 실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감독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고 주장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보편교회가 있듯이 주교가 나타나는 곳에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주교를 제쳐두고 세례를 주거나 애찬을 행하지 마십시오. 주교가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흡족해 하시므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확실하고 적법하게 됩니다.⁶⁵

왜 이렇게 감독의 권위가 강조되었을까? 앞서 간략하게 언급되었듯이 이단의 공격 앞에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감독의 권위가 높아졌다. 이는 소위 ‘사도전승’의 계승과 관련된 것이다. 문제는 이 전승을 누가 소유했느냐는 것이다.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의 참된 계승자라고 주장하면서 예수가 꿈이나 환상을 통해 그들에게 직접 알려주었다고 말했다. 원 정통교회는 주교들이 사도들과 그들의 진정한 계승자라고 반박했다. 감독들은 영지주의자들과는 달리 공적인 가르침을 통해 사도들의 전통을 전달해준다고 주장했다. 정통기독교인들은 주교의 정통성과 더불어 신약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들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교회에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인식은 로마와 서머나 교회와 같은 곳과 이곳의 합법적인 감독들이 사도전승의 담지자들이라는 관념으로 이어졌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공유하면 하나의 교회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로마교회와 같은 곳의 감독과 교체하면 정통교회로 간주되었다. 정통교회는 사도전승

64. Lynch, *Early Christianity*, 65-66.

65. Ignatius, *Letter to the Smyrnaeans*, 8.1-2, 박미경 역주, 『이냐시오스 일곱편지』(왜관: 분도출판사, 2000).

의 소유자로 여겨지는 교회의 감독의 목록을 만들기 시작했다.⁶⁶ 이레네우스(Irenaeus of Lyons, c.130-c.202)는 『이단반박』에서 사도전승의 계승을 주장하면서 로마와 서머나의 감독의 명단을 기록하였다. 로마교회는 베드로와 바울을 설립자로 해서 베드로에 의해 임명된 것으로 알려진 리누스(Linus)로부터 엘류테루스까지 13명 감독들이 있었고 서머나 교회에는 사도들에 의해 폴리카이 감독으로 임명되었음을 밝힌다.⁶⁷

감독의 권위가 강화된 또 다른 이유는 예전과 관련이 있다. 예전은 고대교회 발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는데 예전 안에서도 세례와 성찬이 강조되었다. 자연스럽게 이러한 교회적 행동들의 집례를 주관하고 대상자들을 교육하고 참가여부를 판단할 사람이 필요하게 되었다. 바울은 고전 11장 27절부터 30절까지에서 신자들이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살피고 성찬에 합당하지 않다고 여겨지면 참석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감독은 사도전승의 살아있는 전승자로서 교회를 감독하면서 성례를 집례했다. 장로들의 도움을 받아 세례와 성찬에 합당한 자들을 결정했고 알렉산드리아와 같은 큰 도시에서는 회심자들을 위한 교리교육 학교를 운영했다. 감독들은 장로들과 집사들을 세웠고 주변의 감독들과 함께 사제/감독을 임명하기도 했다.⁶⁸

성도들은 감독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를 존경하며 감독은 그에 걸맞은 모범적인 삶의 태도를 요구 받았다. 감독의 중요한 자질은 진실된 삶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르침을 삶으로 보여주어야 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거짓 선생으로 간주되었다.⁶⁹ 어거스틴은 “훌륭한 삶이 웅변적인 설교가 된

66. Lynch, *Early Christianity*, 67-68; Gonzalez, 『초대교회사』, 120-22.
67. Irenaeus, *Against Heresies*, 3.1, Lynch, *Early Christianity*, 67-68에서 재인용.
68. Lynch, *Early Christianity*, 66-68.
69. *Didache*, 11.1-13, 15.1-2

다”고 지적했다. 감독은 검소하고 진실되고 구제에 힘쓰고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했다.⁷⁰ 이것은 장로와 집사도 마찬가지였다.

3.2. 사랑의 삶

1) 신자다운 삶: 사랑으로 완성되는 믿음

초대교회는 신자다운 삶을 강조했다. 기독교는 고대종교가 신전, 사제와 제의를 강조하는 관행과는 달리 모든 삶의 영역에 걸친 삶의 규범을 강조했다.⁷¹ 교회 안에서 진리를 배우는 데만 그치지 않고 그 진리를 보여주었으며 이교도인들과 구별되어야 했다. 이는 매우 중요했으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형성은 예배와 교육, 성례를 통해 이루어졌다.⁷² 초대교회의 성도가 되는 과정은 상당히 까다로웠다. 교회의 문턱은 매우 높았다. 박해 시 첩자나 교회에 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잡사들은 교회의 경비원이 되어 방문자들이 양인지 늑대인지 판단하여 들여보냈다.⁷³ 이런 이유로 초대 공동체는 ‘잠긴 동산’(enclosed garden)으로 불렸다.⁷⁴ 첫 번째 검열을 통과하면 동기가 무엇이며 직업이 무엇인지 물었다. 히폴리투스에 따르면 이교의 신화와 죄악 된 삶, 특히 성과 관련된 직업은 신자가 되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버릴 것을 요구 받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교회에 나올 수 없었다.⁷⁵

70. 우병훈, “초대교회 신자들의 삶과 그 교훈,” 200.

71. Hurtado,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렀던 사람들』, 185-238.

72. Kreider, *The Patient Ferment of the Early Church*, 133-244.

73. *Testament of Lord*, 1.36, Alan Kreider, *Worship and Evangelism in Pre-Christendom*, 허현 역, 『초기 기독교의 예배와 복음전도』 (논산: 대장간, 2019), 31에서 재인용.

74. Kreider, 『초기 기독교의 예배』, 35-36.

75. Hippolytus, *Apostolic Tradition*, 16.

예비신자로 인정된 사람들은 3년 동안 규칙적으로 말씀 교육을 받았고 이 때 교육의 중심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이었다. 예비과정은 청원자-선택된 자-세례대상자 세 단계로 이루어져 여러 번의 시험을 받았다. 그 시험 역시 그들이 얼마나 윤리적 삶, 구체적으로 과부와 병자를 돌보며 선행을 했는지 여부였다. 그 후 보통 부활절에 세례를 받았다.⁷⁶ 교회는 신자들에게 세상과 철저히 구별될 것을 요구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신자들은 ‘새롭게’ 태어났다. 키프리안은 자신의 변화과정을 상세하게 묘사한다.

어떻게 회심이 가능한 것일까? ...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뿌리 깊게 새겨졌다. 자유로운 연회와 호화로운 잔치에 익숙한 사람이 언제 검약을 배운다는 것인가? 금과 자색의 번쩍거리는 옷을 입고, 값비싼 의복을 과시했던 사람이 언제 평범하고 단순한 옷으로 자신을 낮출 수 있단 말인가? ... 거듭남의 물로 이전 삶의 얼룩이 씻겨져 나갔다... 하늘로부터 불어온 성령으로 인해 두 번째 탄생이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켰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의심스러운 것들이 한꺼번에 확실하게 이해되었다... 전에는 어려운 것처럼 보였던 것들이 해결 방법을 제안하기 시작했다.⁷⁷

무명의 작가가 보낸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낸 편지』가 말하듯 초대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서 하늘에 소망을 둔 ‘거류민’ 혹은 ‘외국인’으로 살아갔다. 그리스-로마세계의 사람들처럼 같은 의복, 음식, 풍습을 따라 살지만 그들의 삶의 방식은 달랐다. 낙태와 유아살해를 하지 않고 혼인 외에는 성적 관계를 가

76. 김정, 『초대교회 예배사』 (서울: CLC, 2014), 144-48.

77. Cyprian, *Ad Donatum* 3-4, Kreider, 『초대교회』, 73, 75에서 재인용.

치지 않으며 신분, 성, 인종, 국적을 초월하여 한 공동체를 이루고 단순하고 소박하지만 강력한 도덕적인 삶을 살았다.⁷⁸ 기독교인들은 로마 사회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만만치 않은 여러 어려움들에 직면했지만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려는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⁷⁹ 『1세기 기독교 시리즈』를 쓴 뱅크스(Robert J. Banks)는 가상의 그리스도인인 푸블리우스의 삶을 통해 첫 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족, 친구, 이웃과 동료와 시민들과 함께 하면서 보여준 삶의 질에서 주변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음을 잘 보여주었다.⁸⁰ 이교도인들은 이들의 삶에서 알 수 없는 힘과 능력, 감동을 느꼈다.⁸¹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사랑, 즉 구제였다. 성경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과 돌봄을 강조하고 이를 참된 신앙의 표지로 가르친다. 자비의 선행은 받는 자에게만 아니라 베푸는 자에게 종말에 상상할 수 없는 보상을 가져다준다(출 22:21-27; 레 19:9-10; 신 14:28-29; 잠 19:17; 단 4:27; 마 6:19-24; 19:16-30; 25:31-46; 벧전 4:7-9 등). 이 중에서 가난한 자와 그리스도를 동일시하는 마태복음 25장 31-46절이 초대교회 구제와 부와 가난에 대한 개념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⁸² 이러한 가르침을 이어받아 교회는 생성초기부터 이웃사랑과 자비, 원수를 사랑하고 복수하지 말 것이 강조하였다. 로마의 어떤 종교도 기독교만큼 교리와

78. *Epistle to Diognetus*, 5-6, 서공석 역주, 『디오그네투스에게』 (왜관: 분도출판사, 2010).

79. Hurtado,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렀던 사람들』, 237.

80. Robert J. Banks, *Going to Church in the First Century*, 신현기 역,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서울: IVP, 2017); id., *A Day in the Life of an Early Christian: A Personal Record*, 신현기 역,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 (서울: IVP, 2018); id., *Stepping out in Mission under Caesar's Shadow: A Progress Report*, 신현기 역, 『1세기 그리스도인의 선교 이야기』 (서울: IVP, 2020).

81. Kreider, 『초대교회』, 35-36.

82. Helen Rhee, *Loving the Poor, Saving the Rich: Wealth, Poverty, and Early Christian Formation*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2), 27-40.

행동에서 사랑을 중시하는 종교는 없다.⁸³ 디다케는 이웃사랑과 구제를 생명의 길에 이르는 핵심으로 가르치며 부지런히 이웃을 섬길 것을 명한다.⁸⁴ 유대인들은 구약으로부터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돌봄을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실천하지 않았고 기부문화가 번성했던 그리스-로마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결여되어 있었다. 선물 주고받기(gift exchange)는 시민들 사이에 이루어지던 문화관습이었다.⁸⁵ 그러나 기독교는 이 두 문화가 가지고 있던 약점을 극복하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을 종교의 가장 핵심적인 실천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불신자가 바라본 당시의 교회는 그야말로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결정체이다.

2세기 이후 자비와 구제활동은 교회의 봉사로 체계적으로 제도화되었다.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혐오 받던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겼다. 교부들은 부자들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는 이기적인 누림이 아닌 다른 사람을 돕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교부들은 또한 부와 구원을 밀접하게 관련시켰다. 교회는 재산 나눔, 과부와 고아, 빈민 구제, 죄수 돌봄과 노예 해방, 죽은 이의 매장, 손님후대의 활동을 펼쳤다. 주교들이 궁극적인 책임을 맡고 부제들이 실제로 실행했다.⁸⁶

기독교가 얼마나 구제를 많이 했으면 이교도 황제인 줄리안(Julian)은 퇴락하고 있는 그리스-로마의 종교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의 자선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기독교인들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을 나누어주고 여관

83. Hurtado,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렀던 사람들』, 104.

84. *Didache*, 1.1-5.

85. 남성현, 『병원의 탄생과 발전 그리고 기독교 영성의 역할: 4세기에서 19세기까지 기독교 사회 복지의 역사에 대한 연구』 (서울: CLC, 2020), 100-101.

86. Rhee, *Loving the Poor*; Frank, 『고대교회사 개론』, 288.

을 지어 나그네들을 영접해야 한다고 했다. 교인들은 핍박을 받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목숨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사랑을 실천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⁸⁷ 특히 전염병 시기에 기독교인들의 사랑의 실천은 놀라운 것이었다. 주후 165년과 251년 로마에 두 차례 큰 전염병이 있었을 때 국가는 이를 신의 심판으로 여기고 방치했다. 사람들은 죽은 시체를 버려두고 도망가기 바빴다. 도시 여기저기에 죽은 시체들이 쌓였다. 그 때 기독교인들이 그 시체들을 치우고 병자들을 치료했다. 따라서 그들은 ‘파라볼라노이’ 즉 위험을 무릅 쓴 자들로 불렸다.⁸⁸ 학자들은 박해를 받고 있고 번듯한 전도행사도 할 수 없었던 교회가 큰 성장을 이룬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사랑의 실천이라고 말한다.⁸⁹ 주후 200년 북 아프리카에서 살았던 미누키우스 펠릭스(Minucius Felix)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의 숫자가 날마다 증가하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좋은 증거입니다. 삶의 아름다움이 교인들을 인내하게 하고, 낯선 이들이 참여하게 합니다. … 우리는 위대한 것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것을 살아가고 있습니다(Octavius, 31.6-8, 38.6).⁹⁰

초대교회는 진리와 사랑이 균형을 이룬 공동체였다. 안으로는 진리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밖으로는 사랑으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었다.

87. Sozomen, *Church History*, 5.16, 남성현, 『병원의 탄생과 발전』, 107-108에서 재인용.

88. 이상규, 『헬라 로마적 상황에서의 기독교』 (서울: 한들출판사, 2006), 105-106.

89. Stark, 『기독교의 발흥』, 115-48.

90. Minucius Felix, *Octavius*, 31.6-8, 38.6. Kreider, 『초대교회』, 41에서 재인용.

4. 나오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3세기까지의 기독교 성장을 살펴보았다. 이 시기의 교회의 생성과 발전은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이루어졌다. 내부로는 이단의 공격을, 외부로는 유대인과 로마로부터 혹독한 박해를 받았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교회는 소멸되지 않고 오히려 급속도로 성장하여 급기야 로마의 국교가 되었다. 그 비결은 단순하다. 복음과 교회의 본질인 진리와 사랑 속에 머무르는 것이다. 초대교회는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바라며 인내했다. 정경을 확정하고 신조를 만들어 진리에 깊이 뿌리내려 이단의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 직분을 만들어 교회를 세워나갔다. 이처럼 안으로는 말씀과 진리에 굳게 서고 외부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철저히 보여주었다. 예배와 교육과 훈련을 통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하비투스’(habitus, 습관)를 형성했다. 나그네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다.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사랑의 실천이다. 교회는 가치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였다. 1-3세기의 교회는 주님의 가르침에 깊이 뿌리내리고 서로 교제하며 예배에 힘쓰고 사랑의 실천을 힘써 행했다(행 2:42-47). 진리의 뿌리 위에 사랑의 결실을 맺는 신앙의 본질을 보여주었다. 거기서 영적 생명력이 나왔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를 무너트리는 것은 이단과 박해와 같은 외부적인 요소가 아니라 내적인 타락이다. 외부의 공격은 교회를 더 강하게 만든다.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가 정말 위기이다. 기독교가 공인된 후 교회는 모든 것이 안정되었지만 점차적으로 쇠락하여 중세 말에는 근원적인 개혁이 필요할 만큼 무너져 버렸다. 코로나로 인해 위기를 겪는 한국교회는 어디로 나가야 할

까? 초대교회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타락한 중세교회 앞에서 루터,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Ad Fontes*를 외치며 교회를 개혁하였다. *Ad Fontes*란 ‘근원으로 돌아가라’를 의미한다. *Fontes*는 *Fons*의 복수로 ‘근원’ 혹은 ‘샘’을 의미한다. 종교개혁자들은 두 개의 근원으로부터 교회가 변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한 샘은 성경이며 다른 한 근원은 초대교회 전통이다. 곧 그들은 성경과 초대교회로 돌아갈 것을 주창하였다. 오늘날 우리에게 초대교회의 근원은 잊혀진 전통이지만 이 샘을 발견하는 사람은 다시 생명의 물을 퍼 올릴 수 있다. 진리에 뿌리를 두고 사랑의 열매를 맺은 초대교회의 전통은 다시 한 번 우리에게 소망의 길을 보여줄 것이다.

참고문헌

- 김덕수. 『로마와 그리스도교: 그리스도교는 어떻게 로마를 정복했는가?』. 서울: 홍성사, 2017.
- 김정. 『초대교회 예배사』. 서울: CLC, 2014.
- 남성현. 『병원의 탄생과 발전 그리고 기독교 영성의 역할: 4세기에서 19세기까지 기독교 사회 복지의 역사에 대한 연구』. 서울: CLC, 2020.
- 배정훈. “1-3세기 박해: 역사적 사실과 교훈.” 『고신신학』 22 (2020): 187-218.
- 안명준 편. 『교회통찰: 코로나, 언택트, 뉴 노멀 시대 교회로 살아가기』. 서울: 세움북스, 2020.
- 우병훈. “초대교회 신자들의 삶과 그 교훈.” 이신열 편. 『교리학당』. 부산: 고신대학교 출판부, 2016. 190-208.
- 이도영. 『코로나19 이후 시대와 한국교회의 과제』. 서울: 새물결플러스, 2020.
- 이상규.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로마 제국 하에서의 기독교』. 서울: SFC, 2016.
- _____. 『헬라 로마적 상황에서의 기독교』. 서울: 한들출판사, 2006.

- 이현철 외. 『코로나시대 청소년 신앙 리포트』. 서울: SFC, 2021.
- Anonymous Author(s). *Didache*. 정양모 역주. 『디다케: 열두 사도들의 가르침』. 왜관: 분도출판사, 1993.
- Anonymous Author(s). *Epistle to Diognetus*. 서공석 역주. 『디오그네투스에게』. 왜관: 분도출판사, 2010.
- Banks, Robert J. *Stepping out in Mission under Caesar's Shadow: A Progress Report*. 신현기 역. 『1세기 그리스도인의 선교 이야기』. 서울: IVP, 2020.
- _____. *A Day in the Life of an Early Christian: A Personal Record*. 신현기 역.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 서울: IVP, 2018.
- _____. *Going to Church in the First Century*. 신현기 역.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서울: IVP, 2017.
- Bauer, Walter. *Orthodoxy and Heresy in Earliest Christianity*. Trans. Robert A. Kraft and Gerhard Krodel, suppl. Georg Strecker.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9.
- Brown, Peter. *The Rise of Western Christendom: Triumph and Diversity A.D. 200-1000*. 이종경 역. 『기독교 세계의 등장』. 서울: 새물결플러스, 2004.
- Ehrman, Bart D. *Lost Christianities: The Battle for Scripture and the Faiths We Never Know*. 박철현 역. 『잃어버린 기독교의 비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성경과 교리를 둘러싼 숨 막히는 전투』. 서울: 이제, 2008.
- Fox, Robin Lane. *Pagans and Christians*. New York: Knopf, 1987.
- Frank, Karl S. *Lehrbuch der Geschichte der Alten Kirche*. 하성수 역. 『고대교회사 개론』. 서울: 가톨릭출판사, 2008.
- Gibbon, Edward. *The History of the Decline and Fall of the Roman Empire*. New York: Random House, 2003.
- Gonzalez, Justo L. *The Story of Christianity 1: The Early Church to the Dawn of the Reformation*. 2nd ed. 엄성욱 역. 『초대교회사』. 서울: 은성출판사, 2012.
- Grossi, V. "Heresy-Heretic." In *Encyclopedia of Ancient Christianity*. Ed. Angelo Di Berardino. Vol. 2. Downers Grove: IVP, 2014. 216-19.
- Harnack, Adolf von. *The Mission and Expansion of Christianity in the First Three Centuries*. Trans. James Moffatt. London: Williams, 1908.
- Hippolytus. *Apostolic Tradition*. 이형우 역주. 『사도전승』. 왜관: 분도출판사, 1992.
- Hurtado, Larry W. *Destroyer of the Gods: Early Christian Distinctiveness in the Roman World*. 이주만 역.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렀던 사람들』. 서울: 이와우, 2017.
- Ignatius. *The Letter to the Romans*. 박미경 역. 『이나시오스: 일곱편지』. 서울: 분도출판사, 2000.
- Köstenberger, Andreas J. and Michael J. Kruger. *The Heresy of Orthodoxy: How Contemporary Culture's Fascination with Diversity Has Reshaped Our Understanding of Early Christianity*. Wheaton: Crossway, 2010.
- Kreider, Alan. *Resident But Alien: How the Early Church Grew*. 홍현민 역. 『초대교회에 길을 묻다』. 서울: 하늘씨앗, 2020.
- _____. *The Patient Ferment of the Early Church: The Improbable Rise of Christianity in the Roman Empire*.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6.
- _____. *Worship and Evangelism in Pre-Christendom*. 허현 역. 『초기 기독교의 예배와 복음전도』. 논산: 대장간, 2019.
- Lynch, Joseph H. *Early Christianity: A Brief Hist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 McGrath, Alister E. *Heresy: A History of Defending the Truth*. 홍병룡 역. 『그들은 어떻게 이단이 되었는가: 교회가 신앙을 지켜온 치열한 역사』. 서울: 포이에마, 2011.
- McGuckin, John A. *The Path of Christianity: The First Thousand Years*. Downers Grove: IVP.
- MacMullen, Ramsey. *Christianizing the Roman Empire A.D. 100-400*.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4.
- Pagels, Elaine. *The Gnostic Gospels*. 하연희 역. 『영지주의: 숨겨진 복음서』. 서울: 루비박스, 2006.

- _____. *Beyond Belief: The Secret Gospel of Thomas*. 권영주 역. 『믿음을 넘어서: 도마의 비밀 복음서』. 서울: 루비박스, 2006.
- Rhee, Helen. *Loving the Poor, Saving the Rich: Wealth, Poverty, and Early Christian Formation*.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2.
- Stark, Rodney. *The Rise of Christianity: How the Obscure, Marginal Jesus Movement Became the Dominant Religious Force in the Western World in a Few Centuries*. 손현선 역. 『기독교의 발흥: 사회과학자의 시선으로 탐색한 초기 기독교 성장의 요인』. 서울: 좋은씨앗, 2016.
- Stevenson(ed.), J. *A New Eusebius: Documents Illustrating the History of the Church to AD 337*. Rev. by W. H. C. Frend.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3.
- Wilken, Robert L. *The First Thousand Years: A Global History of Christianit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2.
- Williams, Rowan. *Why Study the Past?: The Quest for the Historical Church*. 양세규 역. 『과거의 의미: 역사적 교회에 관한 신학적 탐구』. 서울: 비아, 2019.

Abstract

The Growth of Early Christianity in the First Three Centuries: Community of Truth and Love

Prof. Dr. Junghoon Bae
(Faculty of Theology)

We have been said frequently that the Korean church faces a crisis, but this is much more serious after Covid-19. This paper deals with

the history of the early church, which has been almost overlooked in recent studies, and seeks some ways to solve this crisis. In particular, we will trace the story of the growth of the early church in the first three centuries. The rise of early Christianity church during this period took place within the improbable situations. They were attacked by several heresies on the inside and harshly persecuted by Jews and Romans on the outside. Under, however, these absolutely unfavorable circumstances, the church did not perish, but rather grew rapidly and eventually became the public religion in the Roman Empire. The ways of this growth are very simple. The church held truth and love, which are the essences of the Gospel and the church. Internally, it stood firm in the Word of God and truth through the Bible and doctrine, and externally, it demonstrated the true Christian life thoroughly. Through worship, education, and disciplines, the early Christians formed 'habitus' which was worthy of God's call. As aliens, they led a life which distinguished from the world. The most notable virtue is the practice of love. The Church embraced those who were deemed unworthy, devoted and sacrificed for them. This indicated the essence of faith that bears the fruit of love on the root of truth. From there the spiritual vitality came.

Key words: Growth of Church in the First Three Centuries, Heresies, Persecution, Truth, Love, Life of Aliens